

예술품으로서 일본도의 매력

일본도가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되었던 시대부터 일본도 장인의 기술은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병사들이 전쟁터에 칼을 휴대할 일은 없어졌지만, 전 세계 애호가들이 일본도 제작에 대해 계속해서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칼을 비교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지하다(표면의 문양)’, ‘하몬(베는 부분의 선을 이루는 문양)’, ‘소리(휘어짐)’의 세 요소입니다.

지하다란, 칼날의 표면에 드러나는 문양을 뜻하며, 강철을 접어가며 두드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단련’을 거쳐 형성됩니다. 강철을 반복적으로 접어가면서 약 33,000 층으로 이루어진 치밀한 강철을 만듭니다. 강철을 평평하게 만들고 연마하면 층 부분이 직선이나 물결 무늬, 나뭇결 등 다양한 문양으로 나타납니다.

하사키(베는 부분) 표면의 선을 이루는 문양을 가리키는 하몬은 완전한 직선 모양에서부터 파도 모양, 톱니 모양 등 예술적인 취향에 따라 다양한 문양을 그려넣을 수 있습니다. 휘어진 정도나 칼끝의 폭은 전투 스타일에 맞춰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하몬과 소리(휘어짐)는 모두 ‘담금질’이라는 독특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공정에서는 완성에 가까운 칼몸(도신)에 열 전달 방식이 다른 2 종류의 점토를 바릅니다. 점토를 바른 칼을 약 800 도까지 가열한 후 찬물에 담급니다. 칼몸(도신)의 등 부분에 바른 점토는 천천히 수축하면서 ‘펠라이트’라는 강철으로 변화하고, 하사키(베는 부분)는 급격한 온도 저하로 딱딱해지면서 마텐자이트라는 조직이 됩니다. 이처럼 점토를 바르는 방식에 따라 강철의 수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본도 특유의 소리(휘어짐)가 발생합니다. 연마 작업을 거치면 칼날의 하몬이 드러나는데, 이는 점토가 칠해진 패턴에 따라 결정됩니다.